

# 완주 소싸움대회 열전

### 내달 8~12일 열려... 전국서 150두 참가 자웅 겨뤄

완주군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완주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기량이 우수한 전국의 싸움소 150여두가 출전해 백두급(771kg이상), 한강급(671~770kg), 태백급(600~670kg) 조를 나누고, 조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소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 4~5월 경북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소싸움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완주 싸움소가 많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둘지 기대되고 있다.

전국의 싸움소 130여두가 출전한 지난 대회에서는 완주의 김영만씨의 '완주' 소가 백두급에서, 대구광역시 이원근 씨의 '소룡' 소가 한강급에서, 정읍의 태남석 씨의 '갯바위' 소가 태백급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해 관중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완주군은 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수

입산의 시장 공세로 많은 어려움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양축농가를 위로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홍보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싸움대회를 전국 면 단위에서는 최고의 한우 사육량을 자랑하는 화산면에서 개최하면서 화산면과 완주한우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올해도 3만 명의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대회장을 찾아 소싸움을 즐기는 등 완주소싸움대회가 전국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 산골소년들, 부산 바다로 가다

### 기장군 청소년과 1박2일 우정 다져 복지·행정·민간교류 역할 '눈길'

여름방학을 맞은 무주군 초등학생들이 3일 자매도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제35회 무주-기장 간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을 위해 기장군을 찾은 무주군 학생들은 4일까지 바다체험을 할 예정으로, 첫 날에는 송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밴드 워건과 카약 등을 즐기며 생존수영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도전 60초' 등 공동체 활동과 장기자랑의 시간을 즐겼다.

무주군 학생들은 "바다도 보고, 새 친구도 사귀고 너무 신난다"며 "해양레포츠 체험을 하며 친해진 부산 친구들과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무주군과 기장군에서 선발된 가정위탁 및 조손가정, 한 부모, 저소득세대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여 명이 참가해 4일에는 국립 부산과학관 자동차관과 항공무주관, 선박관에서 관련 체험을 하고 수련활동 모임을 영상에 담아 추억을 되새기며 겨울방학 무주에서의 만남을 기약할 계획이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감미경 여성복지 담당은 "무주-기장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99년 시작된 무주-기장군 간 청소년 수련활동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가정위탁, 조손, 다문화, 저소득 세대 초등학교 4~6학년생 우선 선발)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무주와 기장군은 청소년 수련활동 외에도 △군수와 부군수, 부서장 및 농업직·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간부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재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기장군청 및 동부산 롯데몰에서 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정천면 마을축제 준비 박차

### 내일부터 이틀 간 개최

진안군 정천면(면장 배철기)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9회 진안군 마을축제 여름 한마당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을과 도시, 삶을 나누다'를 주제로 열리는 여름한마당은 5일 정천면 체련공원에서 길놀이로 시작으로 7개 마을에서 마을별 전통·체험행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정천면은 이번 축제에 마조·학동·무거마을 등 3개 마을이 참여하고 정천면체련공원이 거점행사장이 됨에 따라 행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한마당축제는 출현민 및 관광객 뿐 아니라 1사촌 자매결연기관단체

를 초청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즐거운 만남의 장이며 용담호를 중심으로 물과 함께하는 여름마을축제이다.

그동안 정천면은 1사촌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마조마을은 (췌)하림, 학동마을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무거마을은 부산사대부속고등학교충동문화와 결연을 맺어 (췌)하림 도계장 현장견학, 부산사대부속고등학교 동문회체육대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류행사 추진한바 있다.

이번 마을축제에서 정천면은 결연단체를 초청해 1사촌 기념식 등 1박2일로 교류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하반

기에는 일손돕기행사, 축제참여 도농교류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천면 3개 마을은 5일 체련공원에서 마을농산물판매(건나물, 감자, 옥수수, 블루베리, 홍삼 및 오미자제기스 등)와 마을체험행사(감자전, 팔부수, 전복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6일에는 마을 내 천혜자원인 청정공기와 깨끗한 계곡을 끼고 여름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일원에 마조(도라지캐기체험, 메기잡기 및 물놀이), 학동(다슬기잡기, 감자삼삼, 갈딱메기 낚시), 무거(두부·청국장만들기, 천렵)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 무진장소방서, 구천동터널 교통사고 현장서 2명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2일 밤 9시경 무주 구천동 터널 내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자 2명을 구조했다.

무주 구천동터널에서 1톤 화물트럭이 외벽을 충돌한 사고로 환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로 구조장비로 차량문을 개방하여 환자 2명을 구조해 병원에 이송 조치하였으며 교통사고 현장의 사고 잔여물을 치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다.

운전자 최모(62.여)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동승자는 이마 할과상과, 두통 호소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대전 을지대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한백 센터장은 "터널 안에 진입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차량 간 거리 감지와 속도 반응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계기판의 속도를 확인하며 규정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마령 통합방위협 구성

진안군 마령면(면장 조준열) 통합방위협의회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마령면통합방위협의회는 당면적인

면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14명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앞으로 각종 예비군 훈련 및 국가비상사 지역의 안전과 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마령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조준열 면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지역 안보태세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민·관·군·경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 부남면에서 신나는 금강 래프팅 체험을 하고 있다.

# 무주서 즐기는 금강 래프팅

### 부남면 ~ 무주읍 잠수교 13km 구간 지난해 3만여 명 다녀가 '명불허전'

무주군 부남면에 가면 신나는 금강 래프팅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금강 래프팅은 초록 숲으로 둘러싸인 잔잔한 물길에서 즐기는 경관 탐사가 가장 큰 매력으로 급물살 코스가 거의 없고 수량이 풍부해 안전한 래프팅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국 래프팅대회와 카약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며 무주가 래프팅 지역으로서 입소문이 나고 있다.

무주 금강 래프팅 구간은 부남면사무소에서 무주읍 요대 잠수교까지 대략 13km로, 거리에 따라 7km(약 2시간 30분 소요), 8km(약 3시간 소요), 13km구간(약 5시간 소요)에서 생동감 넘치

는 재미를 즐겨볼 수 있다.

무주군 문화관광과 이미경 체육진흥담당은 "금강래프팅을 즐기 기 위해 무주군을 다녀가신 관광객들이 지난해만 3만여 명에 이른다"며 "올 여름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장 동료들이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기는 무주 금강 래프팅의 재미와 매력에 푹 한 번 빠져보시라"고 전했다.

무주 금강 래프팅은 관내 13개 업체를 통해 체험해볼 수 있으며 체험료 및 구간 등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래프팅연합회 사무국(063) 322-423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mju.com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동향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 문화체육장 박삼주·공익장 양옥연 산업근로장 박장우·효열장 홍숙이

진안군 동향면(면장 성진명)은 3일 면민의회 심의위원회를 면 강당에서 열고 박삼주(56)씨, 박장우(65)씨, 임종현(57)씨, 홍숙이(49)씨, 양옥연(66)씨를 선정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박삼주씨는 동향면 체육회 임원으로 동향면 조기축구 활성화를 비롯해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산업근로장에 선정된 박장우씨는 진안군 한우협회장을 역임하며 동향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경동향면향우회 회원인 임종현씨는 면민의 날 및 수박축제를 비롯해 고향행사에 재경향우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우들에게 애환

심을 심어주는 가교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았다.

효열장의 홍숙이씨는 30여년 간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지극히 봉양하며 효행의 참 모습을 몸소 실천한 공이 높이 평가됐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공익장의 양옥연씨는 창촌마을 이장 및 동향면 자원봉사단 부단장, 사회복지협의회 동향면지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동향면의 대소사를 맡는 등 동향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면민의회는 오는 6일 '제21회 동향면민의 날 및 제8회 진안고원 동향한여름 수박축제' 기념식에서 수여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 산서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 문화체육장 양용모·효열장 공번리 산업공익장 한병원·애향장 권희상

장수군 산서면민의회 심사위원회는 2016년 산서면민의 장 수상자에 양용모(문화체육장), 한병원(산업공익장), 권희상(애향장), 공번리(효열장)씨를 각각 선정했다.

문화체육장 양용모(64, 전북도의회의원)씨는 구입마을 출신으로 산서면의 교육문화 향상을 위해 산서초등학교의 과학실 리모델링, 학교 컴퓨터 및 운동기구 설치, 산서중고등학교 청운관 건립 및 학교순조경사업에 앞장 서왔으며 매년 산서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등 산서지역의 문화·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산업공익장 한병원(65)씨는 이통마을을 줄곧 지켜온 토박이로서 장수군의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퇴비살포기, 법제발이기를 공급을 통한 고품질의 쌀 생산으로 도시사표창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장수경찰서로부터 아동안전 보호관으로 위촉받아 지역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현재는 산서면의 변영회장으로 지역발전전에 앞장서고

있다.

애향장 권희상(80)씨는 하오(오메)마을 출신으로 1970년대부터 이장을 10년 이상 역임하며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 및 새마을 운동, 마을하천 사업, 상수도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는 산서면의 대표경로당 노인회장으로 활동하며 초교령회가 진행되고 있는 산서면지역의 주민 화합 및 갈등완화에 솔선수범의 자세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효열장 공번리(30)씨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7년 전 산서면 초장마을 신수열씨와 결혼해 2남을 두고 있으며 효심이 자각하여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시부모를 돌보아주시며 마을 환경정비사업, 경로행사 등 마을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훈훈한 지역 문화 형성에 기여해오고 있다.

한편 산서면은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제38회 산서면민의 날에 면민의 장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특별블로그

## 와일드푸드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제6회 와일드푸드축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활동분야로는 행사프로그램 진행보조, 축제장 주변 환경정리 및 통역, 행사장 안내 등으로 축제 전반에 걸쳐 활동 가능한 자이면 되고, 주로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야별 150명을 모집한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는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및 도내 주요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해주며 봉사자를 위한 교통편 제공 및 최소한의 실비보상과 활동복 등이 지급된다.

자원봉사 관련 문의사항 및 신청은 전화 290-2218 또는 이메일 wanjuvol@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이성운 사무국장은 "축제의 성공을 결정 짓는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축제에서 자원봉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하고 열의 있는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7개 읍면 41곳에 자위방범용 CCTV 설치

장수군은 농촌지역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해 '농촌마을 자위방범체제 CCTV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농촌지역 빈집털이,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7개 읍면 41개 마을에 자위방범용 CCTV 41대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자위방범용 CCTV는 300만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하고 적외선 감지센서를 통해 야간에 사물 인식률이 높아졌다.

특히 마을입구 및 안길 등에 설치돼 주민 안전은 물론이고 절도사건 등 각종 범죄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위방범용 CCTV설치로 농·축산물 절도 및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췌, 피서철 4대역 근절 총력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에서는 3일 오전 경무과장실에서 서장,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불량식품 단속 등 4대역 근절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무주, 법과 치안이 바로선 무주를 만들기 위해 7월 한달간 추진한 실적들 각 기능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규 서장은 "하반기에도 4대역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교통사고예방 야간반사판 부착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주계파출소(소장 노정호)에서는 3일 무주읍 읍내리 일대에서 노인과 장애인 보초의자 차에 대하여 반사판 부착으로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펼쳤다.

야간반사판 부착 활동은 날이 뜨거워짐에 따라 저녁에 활동이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보초의자 차에 경운기에 대해 후면에 부착된 낡은 반사판을 교체하고 새로 구입한 의자차 등에 대해 야간 이동시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